

SERMON 14 MAY 2017 Mothers' Day

저는 저의 어머니에 대한 아주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이 다 좋은 추억들이라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꽤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녀는 항상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바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부모님은 스코틀랜드 Glaswegian 태생인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 살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그녀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돌아왔고 그녀의 어머니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가 배를 타고 자바로 떠나자마자 저의 할머니는 상심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녀의 학교과정을 마칠 때까지 조부모님들을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조 부모님들이 저의 어머니를 보시기 위해 몇 번은 여행을 했었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고등 학교 때 영국 남해안에 있는 기숙 학교로 보내 졌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동쪽으로 여행하는 배에서 스코틀랜드출신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방콕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저의 여자 형제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일본이 삼(그 당시에는 태국을 삼 이라고 불렀습니다)을 침공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호주로 피신하셨습니다. 저의 남자형제 Waverley 메모리얼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회계회사에 의해 방콕으로 발령을 받아서 4 년간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회계사로 일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시드니에 머물러있으시다가 결국 저의 어머니는 영국으로 되돌아가고 아버지의 회사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환경에서 두 어린 아이들과 함께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폭격 기습공격에 돌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아버지는 영국으로 오셨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의

결혼은 10년 이상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30년 동안 돌보셨고 제가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날 때까지 저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기억은 그녀가 매일 아침 그녀의 알람을 새벽 6시에 울리고, 그녀가 이른 아침 차 한잔을 마시며 그녀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30분 동안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지원적이고 격려적이었습니다. 저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은 그녀와 에딘버러 공항에 함께 제가 클라이브와 결혼하고 뉴질랜드로 떠나기 위해 가족들과 다른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키스하는 것이었습니다. Rona와 Alasdair, 그녀의 가장 가까운 두 손자 손녀들은 저와 함께 갔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그녀와 연락을 취했고, 그녀를 만나러 영국으로도 갔었습니다, 아기 앤드류를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년 후에 죽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사람들도 저처럼 눈물 나는 작별 인사들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건 간에 말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다면,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는 다른 좋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즐깁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을 때 우리 자신을 잃습니다.

12년 넘게 월드 비전을 이끌어 온 팀 코스텔로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책을 쓰셨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를 지탱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는 "사랑은 보편적인 문법이다.... 나의 믿음은 나에게 즐거움과 사랑을 준다. CS 루이스가 말하시길, '기쁨은 천국의 진지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왜 하나님을 자비롭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것이 악의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세계에서 고통 받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가? 몇몇 독자들은 심지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기독교인이 된 것 같다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자비심에 대한 믿음이 오직 구체적인 것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길 수 있다면, 저는 이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까요."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는 우리가 터키인으로서 널리 알려진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합니다. 그는 자기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환난을 당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쌓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에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알았던 것만큼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그들이 들은 것에 관해서 관계를 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내면의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시기에 그들을 강화시키는 사랑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요한 복음을 전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본 것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감정적인 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는 지난 번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에게 마땅히 그를 배반하고 그 친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가 떠나야 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항의하지만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이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참으로 많이 사랑 받고 매우 익숙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장례식에서 읽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이상의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힘과 편안함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시니, 나를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 하세요. 또한 예수님을 신뢰 하세요. 그것은 약간 다르게 강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희망을 하나님께 넘겨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맺은 유대 관계가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시킵니다. 그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는 것이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 어울려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주십니다. 오래된 많은 텍스트에서 '대저택'으로 번역된 단어들은, 유감스럽게도 천국보다는 Kellyville 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는 단순히 거쳐할 곳을 가리켜 줍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상상하려고 애씁니다. 여기가, 어디일지? 그들은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GPS 기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소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고통을 의미하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막 십자가 쪽으로 향하려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함께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의 진실은 의심을 받게 되고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고소될 것이고, 그러나 그는 항상 그가 살아온 진실을 고수하며 변함이 없을 것 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보여 주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 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의 방식, 그의

진실과 그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보이십니다. 그의 진실성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곤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통에 의한 심각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의 삶, 우리에게 아직도 주어지고 있는 그의 삶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삶과 진실에 대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과 시대를 위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저는 그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힘을 다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은 지칠 줄 모르고 감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같이 모여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의 말은 앞에 놓인 혼란과 상실을 통해 그들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된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요한은 이 글에서, 그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이, 중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치유자, 인도자 그리고 현명하신 선생님이 셧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작은 순간을 초월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누군가를 떠나게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신뢰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